

국립극단 세계명작 시리즈 佛풍자극 '귀족놀이' 무대에

에릭 비니에 연출... 11일부터 국립극장

■ 프랑스 풍자희곡의 대가인 몰리에르(1622~73) 원작의 연극 '귀족놀이' (사진)가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니에(Eric Vigner·44)의 연출로 11~24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윤택) 기획공연 시리즈 '세계명작무대'의 하나로 공연되는 '귀족놀이'는 우리에게 '귀족수업'이란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작품. 프랑스판 '양반전' 격인 '귀족놀이'는 기존 작품해석이 돈 많은 평민 '주르맹'이 귀족계급에 끼어들려고 벌이는 소동을 단순한 풍자극으로 접근했다면 이번 무대는 주르맹이 후작부인을 만나 문화와 예술에 눈뜨고 이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한 남자의 꿈과 환상이란 측면에서 풀었다.

이번 작품은 국립극단 최초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작이라는 의미도 있다. '귀족놀이'는 한국공연이 끝난 뒤 오는 10월 11~16일 프랑스 브르타뉴의 '로리앙(Lorient)' 극장(1100석)의 가을시즌 공식 레퍼토리로 프랑스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국립극단의 과거 작품 '피고지고 피고지고' '맹진사댁 경사' '무



의도 기행' 등이 해외에서 공연된 적은 있지만 모두 행사 위주의 단발성 초청공연이었던 반면, 이번 '귀족놀이'의 프랑스 나들이는 출연료를 받고 정식으로 상품으로 팔리는 국립극단의 첫번째 해외 진출작이라고 극단측은 설명했다.

'귀족놀이'에는 주르맹으로 분하는 국립극단 간판배우 이상직을 비롯, 조은경 이은희 한윤춘 광명화 등이 출연한다. 02-2280-4115~6